

# 김신영 “제 인생을 전국노래자랑에 바칠게요”

‘전국노래자랑’ 새 진행자 낙점... 첫 여성 단독 MC  
KBS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소통하는 MC 되겠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송해에 이어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게 된 코미디언 김신영(39)은 “몸이 부숴져라 열심히 해보겠다. 제 인생 모든 것을 ‘전국노래자랑’에 바치겠다”고 했다.

김신영은 30일 오전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1TV 예능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새 진행자가 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국노래자랑”은 많은 예능인과 방송인에게 꿈의 무대라며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는 오전 이른 시간인데도 11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접속해 ‘전국노래자랑’과 김신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됐으며, 분장은 물론 특유의 사투리 연기, 먹방까지 모든 걸 다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게 진행 제의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내게 이런 복이 와도 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전국노래자랑’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신영은 “할머니가 항상 진짜 인기 있는 연예인은 ‘전국노래자랑’과 ‘가족오락관’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며 “돌아가신 할머니가 정말 뿌듯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 진행자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앞서 이 자리가 공석일 때 ‘뽀빠이’ 이상용, 코미디언 강호동 등 남성 방송인 중 한 명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제작진은 김신영을 택했다. 김신영은 자신이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전국 어디에 갔다봐도 있을 법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푸근하고 편한 동네 동생이나 손녀 아니면 이모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신영은 앞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송해의 철학을 이어받아 이끌어가고자겠다고 했다. 송해는 ‘전국노래자랑’은 국민이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국민에게 배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김신영은 “내가 웃기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송해 선생님의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자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해보겠다. 성실함과 노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신영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은 10월 16일 첫 방송된다.



블랙핑크 ‘핑크베놈’, 美 빌보드 ‘핫100’ 22위 데뷔

멤버들 솔로곡 포함 10번째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톱40에 진입했다.

2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핑크 베놈’은 9월3일자 ‘핫100’ 차트에서 22위로 데뷔했다.

‘핑크 베놈’은 ‘핫100’ 톱40에 진입한 블랙핑크 네 번째 곡이다.

‘핫100’에서 블랙핑크 곡 중 가장 높은 곳을 찍은 노래는 지난 2020년 ‘아이스크림’이다. 정규 1집 ‘디 앨범’ 수록곡이자 미국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작업한 이 노래는 ‘핫100’에서 13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이기도 하다.

다만 ‘핑크 베놈’은 협업곡이 아닌 K팝 여성 가수 단독으로는 ‘핫100’에서 최고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핫100’에서 K팝 여성 가수 단독 곡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던 곡은 블랙핑크의 ‘하루 유 라이크 댓’(33위)이었다.

블랙핑크는 ‘핑크 베놈’, ‘아이스크림’, ‘하루 유 라이크 댓’ 포함 지금까지 총 8곡을 ‘핫100’에 진입시켰다. 레디디 가가와 함께 한 ‘사워 캔디’(33위), ‘킬 디스 러브’(41위), ‘뚜두뚜두’(65위), ‘러브식 걸즈’(59위), ‘기스 앤 메이크업’(93위) 등이다. 멤버들의 솔로곡인 로제 ‘온더 그라운드’(70위), 리사 ‘라리사’(84위)까지 포함하면 ‘핫100’에 진입한 곡은 10곡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는 9월3일 자 빌보드 내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모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블랙핑크가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러브식 걸즈’로 해당 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선 ‘러브식 걸즈’에 이어 두 번째 1위다.

다만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이미 작년에 ‘온더 그라운드’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유일하게 팀과 솔로로 1위를 기록하게 됐다.

‘빌보드 글로벌 200’은 미국 포함 전 세계 200여개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과 음원 다운로드를 토대로 가장 인기 있는 곡의 순위를 정한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곡 순위를 매긴다.

특히 ‘핑크 베놈’은 2020년 9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 순위를 매긴 이래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간 스트리밍 총량을 기록했다.

블랙핑크의 이번 활동 빌보드 차트 점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달 16일 정규 2집 ‘본 핑크’가 발매되기 때 문이다. 유명 가수 협업곡 등이 포함될 것이라 예상돼 ‘핫100’에서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8일(현지시간) 블랙핑크가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Video Music Awards·2022 MTV VMAs)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현장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기도 하다. 블랙핑크는 이 시상식에서 ‘베를린 모바일’(PUBG MOBILE) 인게임 콘서트 ‘더 비추업’로 올해 신설된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 상을, 리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솔로곡 ‘라리사(Lalisa)’로 ‘베스트 K팝’ 부문을 받았다.

뉴시스

## ‘오징어 게임’과 이정재가 에미상 받을 확률은?

美 언론 “이정재 수상 가능성 높다” 전망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며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드라마 시리즈가 된 ‘오징어 게임’이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다. 바로 다음 달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시어터에서 열리는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Primetime Emmy Awards)이다. 미국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ATAS)가 주최하는 이 시상식은 TV계 아카데미로 불릴 정도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오징어 게임’이 여기서 상을 받으면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완성된다.

‘오징어 게임’은 앞서 골든글로브·배우조합·크리틱스초이스 등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이번에 에미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으면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미국 주요 시상식을 휩쓴 전례 없는 역사를 쓰게 된다. ‘오징어 게임’은 에미 시상식 13개 부문에서 14차례 후보에 올랐다. 부문수보다 후보수가 많은 건 드라마 시리즈 남우조연상 후보에 배우 오영수와 박해수가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은 HBO 드라마 시리즈 ‘석세스션’(25개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문에서 후보가 됐다. 이에 현지 언론은 ‘오징어 게임’이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AP는 “석세스션”이 올해 에미상 레이스에서 최다 후보작으로 선정됐으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고 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연출·극본·남우주연·여우주연·남우조연·여우단역·미술·촬영·편집·음악·특수효과·스틸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 ◇역사를 쓰게 될 이정재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은 건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 배우 이정재다. 이정재는 ‘베터 콜 사울’의 밥 오덴커크,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 ‘석세스션’의 브라더인 쿡스와 제레미 스트롱, ‘세브란스:단절’의 에덤 스톱과 경쟁한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지만, 현지 언론은 대부분 이정재가 수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욕타임스는 “이정재의 수상이 유력하다”고 했고, LA타임스는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재가 상을 받게 되면 에미 시상식 최초로 아시아 국제 배우가 연기상을 받는 역사가 쓰인다. 물론 이전에도 아시아계 배우가 에미에서 상을 받은 적은 있다. 2017년 리즈 아메드가 ‘나이트 오브’로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을, 대런 크리스는 ‘아메리칸 호러 스퀘어’로 다음 해 같은 부문에서 수상했다. 다만 이정재가 수상할 수 있는 건 아시아계 배우는 모두 아시아계일 뿐 국적은 영미권이 아니다. 아메드는 파키스탄계 영국인이고, 크리스는 필리핀계 미국인 혼혈 배우이다. 그밖에 4차례 후보에 오른 적 있는 샌드라 오 역시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이정재가 상을 받으면 영어를 쓰지 않는 아시아 국제 배우가 처음 후보에 올라 처음 수상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역사상 최고의 스피노프 드라마로 꼽히는 ‘베터 콜 사울’이 올해 시즌을 마감했고, ‘오징어 게임’만 없었다면 넷플릭스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오자크’ 역시 최근 마지막 시즌이 나왔다. 따라서 밥 오덴커크와 제이슨 베이트먼이 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두 사람은 이미 에미에서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역시 이정재의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오영수·정호연·박해수·이유미는?  
배우 오영수와 박해수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 정호연은 같은 부문 여우조연상, 이유미 역시 같은 부문 여우게스트(단역) 상 후보에 올라 있다. 오영수는 골든글로브에서 정호연은 미국배우조합(SAG)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 다만 현지에서는 두 배우의 수상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는다. 남우조연상으로는 ‘석세스션’의 키에란 컬킨이, 여우조연상으로는 ‘베터 콜 사울’의 레이 시혼이 유력하다고 본다. 컬킨은 올해 열린 각종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가장 많이 받은 배우이다. 게다가 뛰어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에미에서 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시혼 역시 ‘베터 콜 사울’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음에도 그간 상복이 없었다는 점에서 ‘베터 콜 사울’의 마지막 시즌이 끝난 올해야말로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예측이 많다.

그러나 오영수와 정호연의 수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현지 매체들은 오영수가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았다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본다. 또 정호연을 “오징어 게임의 심장이자 영혼”이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골든글로브와 미국배우조합에서 두 사람이 상을 받은 것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과였다. 또 다른 후보자인 박해수와 이유미는 수상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연기 외에는?  
‘오징어 게임’은 연기상 외의 부문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꼽히는 건 미술과 음악이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였다. 극중 게임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게임을 하는 공간은 이전엔 어떤 데스 게임(Death Game) 장르 영화·드라마도 시도하지 않은 독특한 형태라는 점에서 전 세계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외 언론은 한 목소리로 “창의적인 형태의 세트장이 이 작품을 관객 뇌리에 깊게 남겨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오징어 게임’의 음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요소였다. 가수 겸 작곡가 정재일이 만든 ‘오징어 게임’ 사운드 트랙은 타악기와 관악기가 결합된 독특한 사운드의 ‘웨이 백 텐’(Way Back Then) 등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웨이 백 텐’은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중독성을 보여주며 국내외 각종 예능 프로그램 및 유튜브 콘텐츠에서 수없이 쓰였고, 해외에서도 ‘오징어 게임’ 하면 이 음악을 떠올릴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징어 게임’ 음악이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재일은 지난 6월 영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음악 레이블 중 하나인 데카(DECCA) 레코드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밖에도 작품·연출·극본 등에서도 수상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부문에서는 경쟁자들의 완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을 예측된다.

◇연기 외에는?  
‘오징어 게임’은 연기상 외의 부문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꼽히는 건 미술과 음악이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였다. 극중 게임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게임을 하는 공간은 이전엔 어떤 데스 게임(Death Game) 장르 영화·드라마도 시도하지 않은 독특한 형태라는 점에서 전 세계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외 언론은 한 목소리로 “창의적인 형태의 세트장이 이 작품을 관객 뇌리에 깊게 남겨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 K-예능 ‘런닝맨’, 필리핀 버전 론칭... 다음달 첫방

SBS가 자사 대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베트남판에 이어 ‘런닝맨 필리핀’을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SBS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베트남 지상파 채널 HTV7을 통해 ‘런닝맨 베트남’ 시즌 1·2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런닝맨 필리핀’은 시즌 전 회차를 우리나라 주요 명소에서 촬영했다. SBS 최소형 PD가 연출로 참여한 가운데, 멤버들은 첫 촬영지인 경기도 수원 화성 행궁을 비롯해 인천 월미도 공원, 논산 선사인 스튜디오, 목포 일대 등을 배경으로 ‘런닝맨’ 시그니처 게임인 ‘이탈표 뜯기’, 국내 버라이어티 예능의 필수 아이템 ‘플라이 체어’ 퀴즈 등에 도전해 ‘K-예능’의 진수를 필리핀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번 ‘런닝맨 필리핀’에는 만능 엔터테이너 미카엘 데즈(Mikael Daez)를 필두로 대세 배우인 루루 마드리드(Ruru Madrid), 클레이자 데카스트로(Glaiza De Castro) 등이 멤버로 투입된다.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는 27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프로그램 론칭 행사를 비롯해 30일에는 ‘런닝맨 필리핀’ 주제곡을 스포티파이를 통해 전격 공개한다.

‘런닝맨 필리핀 시즌1’은 9월 3일부터 필리핀 지상파 채널 GMA에서 방영된다. 총 16부작이다.